

황의조 빈자리... '원톱' 조규성 출격

김민재 파트너로 권경원 나서
훈련시간 부족 기존 주축 중용
왼쪽 풀백엔 부상 극복 김진수

결친 붉은 열기로 충분히 뜨거웠다.

과 수비수 사헌 압둘라흐만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해 판 마르베이크 감독을 근심스럽게 했다.

을 끌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노리는 한국축구가 뜨거운 레이스를 이어갔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1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홈 5차전을 치렀다. 9·10월 소화한 4차전까지 2승2무, 승점 8을 쌓아 조 2위를 마크한 상황에서 선두 도약을 바라보던 한국의 퍼포먼스는 인상적이었다. A대표팀 소집과 함께 전국에 한파가 찾아왔으나 초록 피치는 태극전사들의 열정과 물

Q=부상과 전력누수가 화두였다. A=한국과 UAE 모두 풀 전력이 아니었다. '벤투호'는 창과 방패가 빠졌다. 스트라이커 황의조(보르도)와 베테랑 중앙수비수 김영권(감바 오사카)을 부상으로 소집할 수 없게 되자 벤투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 일부 변화를 줬다. 김민재(페네르바체)의 중앙 수비 파트너로 권경원(성남FC)이 나섰고, 선발 원 톱에 조규성(김천 상무)이 출격했다. UAE도 정상은 아니었다. 조기 입국해 빠른 적응에 나섰으나 최종예선 4경기를 전부 땀 브라질 출신의 귀화 공격수 파비우 리마가 햄스트링을 다쳐 조기 귀국했고, 수비형 미드필더 마제드 하산

Q=그럼에도 최정예가 총출동했는데. A=유럽과의 합류가 늦은 A대표팀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벤투 감독의 축구 철학에 익숙한 선수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턴), 이재성(마인츠05), 황인범(루빈 카잔), 정우영(알 사드) 등 기존 주축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왼쪽 풀백은 부상 후유증을 털어낸 김진수(전북 현대)가 책임진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오른쪽 측면을 이용이 많아 포백 수비진의 양 사이드를 나란히 전복 멤버가 채워 눈길

Q=초반부터 화끈한 공세가 인상적이었는데. A=벤투 감독은 부임 초부터 ▲전방위 빌드업 ▲빠른 공수전개 ▲쉽 없는 압박 등을 강조해왔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A대표팀은 3가지를 성실히 이행했다. 특히 전반 15분 무렵까지 한국의 일방적인 공세가 펼쳐졌다. 중원 한복판에 배치돼 공격 2선과 3선을 오간 황인범의 위치에 따라 4-2-3-1과 4-1-4-1 포메이션을 오간 '벤투호'는 수많은 인터셉트와 푹푹한 활동량, 측면 침투, 적극적인 수 시도로 UAE를 압도했다. 황인범은 상대 문전 오른쪽에서 파울을 유도해 전반 36분 황희찬의 페널티킥(PK) 선제골을 엮었다.

고양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베트남축구협회와 1년 계약 연장에 합의한 박항서 감독이 내년 5월부터는 A대표팀만 전담할 예정이다. 뉴스

“월드컵 본선 못 가도 남아달라” 박항서 감독 잡은 베트남 진심

해외연수 염두해 둔 박항서 감독에 간절함 전해
1년 연장 합의...내년5월부터 A대표팀만 맡기로

박항서 감독(62)이 베트남축구와 동행 1년 연장했다. 베트남축구협회(VFF)와 박 감독의 매니지먼트사인 DJ매니지먼트는 10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양측이 1년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베트남축구 발전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는 2019년 맺은 2+1년 연장계약에 대한 유효 발효”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31일까지인 계약연장은 아주 상징적 결정이다. 박 감독은 각급 무대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를 썼다.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이끌고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과 그해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 4강 진출의 성과를 냈고, A대표팀으로는 10년 만에 '동남아 월드컵'인 2018 스톱키컵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2019년 동남아시아(SEA) 게임에선 60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고, 베트남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2022카타르) 아시아 최종예선 진출에 성공했다. 박 감독은 그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8월 베트남축구계에서 활동한 외국인 최초로 2급 노동훈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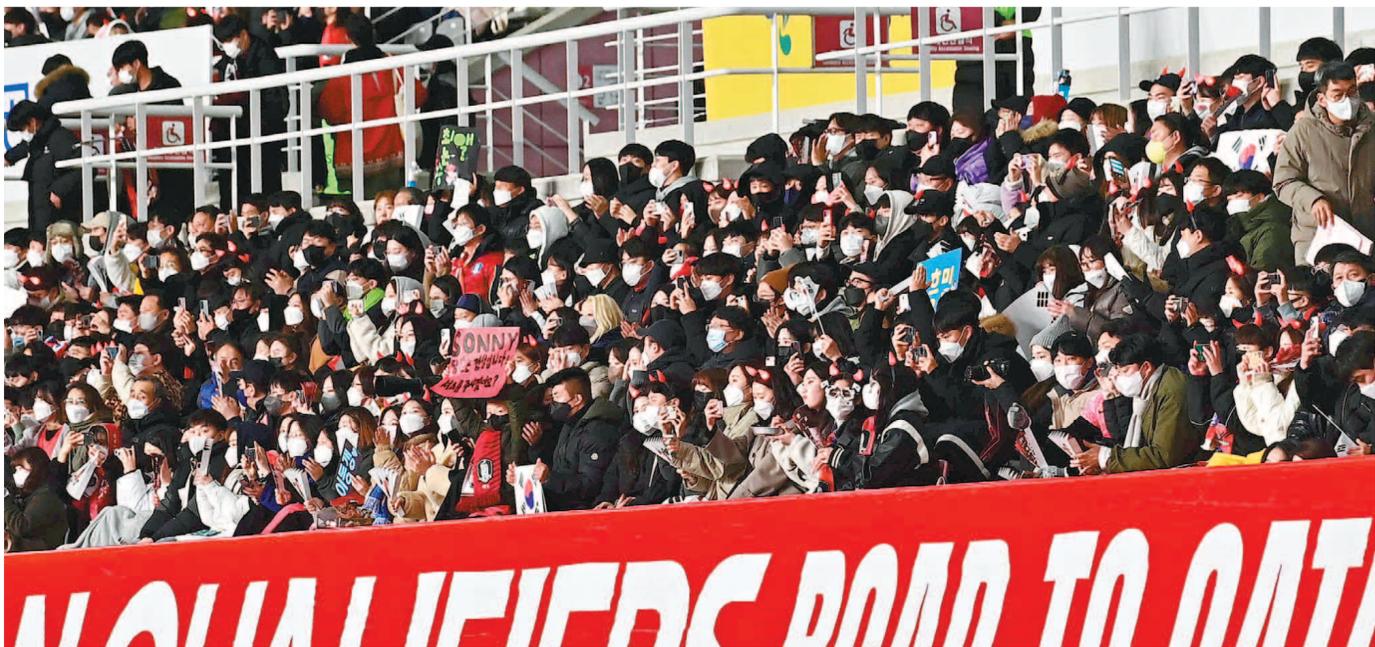
다만 박 감독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로에게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쉽 없이 내달리면서 '비움'의 과정만 반복한 그는 새로운 흐름을 채우기 위한 해외연수를 염두에 뒀다. 2020도쿄올림픽을 마친 뒤 유럽과 남미로 향한 김학범 감독처럼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은 채 짧은 심포를 찍고 싶었다. 이 와중에 여러 해외 협회들이 접촉해오면서 다음 행보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VFF의 생각은 달랐다. 자국 축구를 뿌리부터 완전히 변화시킨 지도자와 헤어질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8월말 시작한 '연장 옵션' 논의는 베트남대표팀이 중동 원정 2연전에 나선 10월 중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최종예선 성적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음에도 VFF는 박 감독 이외의 대안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꾸준히 “베트남축구의 미래를 위해 일해달라. 계속 팀을 성장시켜달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합의에 이르게 됐다.

계약연장 발표 시점도 흥미롭다. 하노이 마이 딘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일본과 최종예선 A조 5차전 홈경기 전 날이었다. 월드컵 본선행이 어렵더라도 서로의 신뢰관계가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에 좋은 시기였다.

다만 역할은 일부 조정된다. 박 감독은 2017년부터 베트남 A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동시에 이끌었으나, 내년 5월 2021 SEA 게임(1년 연기)이 끝나면 A대표팀만 지휘하기로 했다.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A대표팀 운영을 위해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1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국-UAE의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5차전에는 그동안 직접 관람에 목말랐던 팬들이 대거 몰려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고양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2년만에 울려 퍼진 '대~한민국'...황희찬 PK골엔 경기장 떠나갈 듯

키오프직전까지 2만8000석 판매
손흥민 불수있는 좌석은 조기매진

한국축구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 2년간 전 세계 축구를 잔뜩 움츠러들게 했다. 한국축구의 열기도 찬물을 끼얹은 듯이 차갑게 식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한국 축구는 코로나19가 뒤덮었던 암흑기를 견어내기 시작했다. 축구 팬들은 11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UAE)의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5차전이 벌어진 고양종합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패스를 도입해 관중석을 전면 개방했다. 2019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이후 약 2년 만에 100% 유관중 경기가 열렸다. 올해 6월 고양에서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3경기가 유관중으로 개최된 바 있지만, 당시엔 약 4000명의 팬들만이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예매 경쟁부터 뜨거웠다. KFA 관계자

에 따르면, 키오프 직전까지 유효좌석 3만 5000여석 중 약 2만8000석이 판매됐다. 손흥민(29·토트넘), 황희찬(25·울버햄턴), 김민재(25·페네르바체) 등 태극전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프리미엄 존(11만~15만 원)과 1등석(4만~6만 원)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 응원은 더욱 뜨거워졌다. 주심의 키오프 휘슬이 울리자 팬들은 그리웠던 '대~한민국'을 외쳤고, 멋진 플레이에 환호를 보냈다. 선수들이 거친 파울을 당할 때면 UAE 선수들에게 야

를 날리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전반 36분 황희찬의 페널티킥(PK) 선제골이 나오자 고양종합운동장은 관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벤투호'와 팬들의 만남은 뜨거웠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내년 3월 24일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란과 최종예선 9차전까지 팬들은 긴 기다림을 감내해야 한다. 레바논(2022년 1월 27일)~시리아(2022년 2월 1일)로 이어지는 7, 8차전은 모두 원정 경기로 치러진다.

고양 |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대표팀과 인연 없던 K리그 득점왕, 어디 주민규 뿐일까...

스토리 사커

올 시즌 K리그의 히트상품은 누가 뭐래도 주민규(31·제주 유나이티드)다. 골 레이스가 가히 폭발적이다. 35라운드까지 21골로 K리그(1부) 득점 1위다. 2위 라스(수원FC)와 4골차여서 득점왕이 유력하다. 국내선수 득점왕은 2016년 정조국이 마지막이었다.

이쯤 되면 태극마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스트라이커 황의조(보르도)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파울루 벤투 국가대표팀 감독은 그를 외면했다. 대신 김건희(수원 삼성)를 발

탁했다. 벤투 감독은 “공격수를 선발할 때 득점만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가대표는 실력은 물론 운이 따라야 한다. 시대도 잘 타고나야 한다. 자기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또 감독과 공합이 맞아야 한다. K리그 득점왕 중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태극마크와 인연이 없던 선수들이 꽤 있다.

1996년 득점왕 신대용이 대표적이다. 1992년 일화(현 성남FC)에 입단한 그는 신인상을 받았다. 1995년에는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하지만 태극마크와는 큰 인연이 없었다. A매치 통산 23경기(3골)만 뛰었다. 월드컵과도 인연이 닿지 않았다. 한·일월드컵을 1년 앞둔 2001년 K리그 MVP를 받고도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했다.

역대 2차례 K리그 득점왕에 오른 선수는 모두 3명이다. 그 중 김도훈(2000·2003년)은 10년간 A매치 72경기(30골)를 뒀던 반면 이기근(1988·1991년)과 윤상철(1990·1994년)은 대표팀의 부름을 거의 받지 못했다.

1983년 세계청소년선수권 4강 주역 이기근은 1987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해 1988년과 1992년 2차례 우승을 이끄는 등 K리그 최고의 골잡이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A매치는 고작 2경기(0골)에 불과하다.

1988년 럭키금성(현 FC서울)에 입단한 윤상철은 1990년 득점왕과 함께 팀의 우승을 이끄는 등 K리그의 대표적인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골문 근처에서 슈팅 타이밍과 득점감각은 당대 최고로 꼽혔다. 통산 득점 랭킹은 10위(101골)다. 하지만 대표팀 기록은 초라하다. 1992년 10월 UAE와 친선경기가 유일한 A매치다. 골은 없다.

1997년 득점왕 김형석도 K리그 레전드다. 1990년 울산 현대에 입단해 2003년 은퇴할 때까지 '원클럽맨'으로 뛰었던 그는 통산 득점 랭킹 8위(110골)다. 하지만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서 번번이 탈락하며 '국내용'이란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A매치 기록은 23경기, 5골이다.

대표팀 선발은 감독의 고유권한이다. 성향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주민규 선발과 관련해 더 이상의 왈가왈부하는 무의미하다. 월드컵은 계속된다. 기회는 또 온다. 선수로 뛰는 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